트럼프 행정부는 왜 인구조사에서 '국적'을 물으려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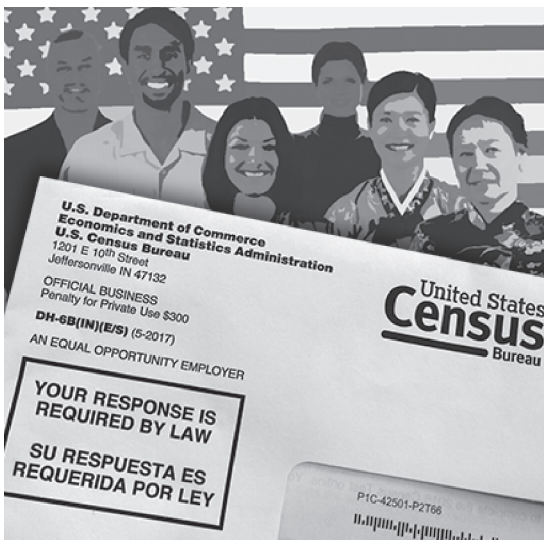
미국 연방 헌법은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지난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해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내 구성원의 이름과 16세 이하, 16세 이상인 백인 남성, 백인 여성, 기타 자유인, 그리고 노예의 숫자를 물었다.

그런데 오는 2020년 실시될 인구조사를 앞두고 인구조사 질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 인구조사에서는 가구 구성원에게 모두 8가지 항목을 묻는다. 나이와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또 구성원이 히스패닉이나 라티노, 또는 스페인계인지를 묻는 말, 인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집 보유 여부, 그리고 가구 구성원 수 등 기능적인 질문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 항목이다.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은 지난 1950년 인구조사 때부터 빠졌다.

이와 관련해 '뉴요커' 의 Jonathan Blitzer 기자는 지난 3월 29일 The Motives Behind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Census Question on Citizenship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구조사 설문에 국적을 묻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도 데이비드 비터 (루이지애나)과 로버트 베넷(유타) 두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10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인구조사 질문지의 내용을 바꾸자는 주장을 폈다. 인구조사국이 담당하는 인구조사는 미국 시민뿐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조사 자료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데 근거 자료로 쓰이는 등 대단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비터와 베넷 두 의원은 질문지에 응답자의 국적을



묻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별로 인구에 관계없이 두 석씩 주어지는 상원과 달리 총 438석을 인구에 비례해 나누는 하원의 의석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비터 의원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지 않다 보니 불법 이민자가 많이 사는 주가 의석수를 많이 배정받고, 자신이 속한 루이지애나 같은 주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주장이다.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주에서 대개 민주당이 인기가 많은데, 결국 민주당이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으니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도 논의에 불을 붙인 건 공화당이었다.

결국 지난 2월 상무부는 2020년 인구조사에 응답자의 국적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가 미국 유권자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 라며 국적 질문을 포함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는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대로 국적을 묻는 질문을 넣으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인구조사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조사 결과도 왜곡돼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은 연방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덜 받게 된다. 하지만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질문을 새로 바꾼다고 인구조사 응답률이나 참여율이 낮아지리라는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대로 인구조사 질문지를 바꾼다면 미국의 이민 정책은 20세기 중반으로 회귀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1965년은 미국 이민 역사에 중요한 해인데, 이때부터 유럽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꾸린 이들은 바로 미국인이 될 수는 없었어도 미국에서 훌륭한 이웃으로 잘 살아왔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의 후손은 미국인으로 태어나 미국인으로 자랐다.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며 미국 정부, 사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난데없이 미국 정부가 누구는 미국인이고, 누구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규정을 들먹이며 호구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Jonathan Blitzer 기자는 '이민자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아메리칸 드림을 깡그리 무시하려는 처사' 라고 비판했다.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비만약
효과가 너무 좋아 다이어트 주류사회 진출 준비로 새 디자인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Diet U!
20년 동안 인증되었고, 날씬한 몸매로 만들어 드립니다.
Review
1) 나는 닥터 최를 2년 전에 만나서 허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닥터 최를 만나기 전 양방의사가 처방한 800mg 진통제를 매일 10알씩 먹고도 고통에 못 이겨 울었고 로보트같이 뚝딱하게 되어 몸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닥터 최에게 일주일에 3번(2주) 2번(2주) 1번(3개월) 치료를 받고 몸이 너무 좋아져서 진통제를 완전히 끊었다. 비만약을 먹고 50파운드를 줄였다. 닥터 최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_ – Robert v.
2) 본인과 아내가 1병을 나누어서 약 3주정도 복용했는데, 처음엔 대변에서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면서, 배도 싸르르, 차차 없어지며 지금은 너무 좋아졌음. 더이상 복용하지 않으며 매일 아침 쾌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전화바람. 친구에게 소개했는데 친구도 1병 복용하고 5파운드 감량. – Francis Lee

변비약
미국 내 4억명 이상의 인구가 변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변비 환자가 3배나 많습니다. 65세 이후의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변비로 고생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변비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을 치료합니다.
Review
비만과 심한 변비가 있었다. 관장을 하지 않으면 변을 보지 못했다. 내장 비만약과 변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효과는 정말 놀라웠다. 그렇게 심하던 변비가 신기하게도 없어졌다. – Kwi Sook Kim

견비통
어깨통증은 어깨뼈가 바른 위치에 있지 않거나, 목이나 어깨, 대장, 소장의 문제, 폐 혹은 혈액 순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Review
모든 약이 목과 어깨로 가서 풀어주고 낫게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 통증약도 안듣고 저녁에 울고싶을 정도였는데, 약을 먹고 5일부터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한달만에 다 나았다. – 이인섭 (작곡가 스타노래교실)

감기약
어지럽지 않고 콧물이 없어지면서 3일 안에 감기 뚝
감기 초기에 먹으면 2–3일 만에 낫고 독감으로 발전이 안되며 콧물이 싹 마르고 몸이 쑤셔서 직장에 결석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다는 것은 피로하여 몸에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므로 일을 줄이고 잘자고 잘먹고 술, 담배 등을 삼가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 최고 인기약 입니다.
5일분 작은병 출시 $25 (Tax 포함)
목.등.허리.어깨통증을 금방 낫게 해드립니다.
디스크 치료 전문

어혈약
떨리고, 땡기고, 쑤시는 증상은 다 어혈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손발이 찬 것은 혈이 안돌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뜨끈뜨끈 해집니다.
Review
1) Blood Stagration 약을 한달가량 복용했는데 피검사 하시는 분께 몸관리 잘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몸관리 한 것은 전혀 없고, 약만 착실하게 복용했을 뿐입니다. 머리에 잔통증 같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혈압약도 같이 복용했는데 부작용이 전혀 없었고, 혈압증세도 없어 졌습니다. – Casey Cho
2) 어혈, 독소제거약을 먹었습니다. 피를 매일 뽑았었는데 몸이 좋아져서 이제 안 뽑습니다. 열개(하루 4번)를 먹었는데 금방 반응이 오고 좋아졌습니다. – 이재원

에너지약
온몸에 기운을 주고 약 복용 후 일주일 부터 힘이 난다.
Review
1) 아기를 낳아서 너무 지치고 짜증이 났었는데 기운이 나니 아기와 남편과 즐겁게 지낸다.
2)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나면 구토 후에 기운이 쫙 빠졌는데 기운이 난다. – Kil Kim
3) 틀니 치과치료 후 먹지 못해 기진맥진하고 이빨이 아파 밥맛도 없었는데, 기운이 나고 밥맛도 났다. – 이명숙 (무용가)

확장이전 새 주소
6TH
Normandie
#102
Mariposa
Alexandria
Wilshire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전화문의 213–381–8228
603 S. Mariposa Ave., #102
Los Angeles, CA 90005

모든 보험
PPO, HMO, 오바마케어,
LA CARE, 메디케어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칼 그룹
카이저보험